

People & Life

“재능기부... 이웃사랑 가까이에 있어요”

행복한 자원봉사

보육원 종이접기·동화구연 강사 김규례 씨

“제가 시작한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나눔 문화’가 점차 확산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이접기’와 ‘동화구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례(50·호남대 평생교육원 강사)씨가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은 독특하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문화적으로 소외된 보육원, 아동센터, 정신 요양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치며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

‘마술 손 아줌마’로 통하는 김씨의 손을 거치면 작은 색종이가 고양이로, 때로는 영화 속 캐릭터로 탄생한다. 캐릭터들이 모여 작은 역사가 되고 한편의 동화로 다시 태어난다.
아이들은 손바닥 만한 색종이를 접으며 동심을 만들고,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린다. 정신 요양원 환자들은 종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종이접기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홀로 남은 친구의 아이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일해보자. 처음에는 후원금을 냈다가 시설에서 청소를 할까? 여러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재주를 꿈을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05년 봉사활동의 영역을 한 발자국 더 넓혔다.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에 비해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종이접기’와 ‘동화구연’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랑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이런 노력으로 현재 3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와 뜻을 함께하며 아동센터 등지에서 ‘사랑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가 가진 작은 재능을 기부하면서 흔히 몸으로 하는 노력봉사나 후원금을 내는 것만을 자원봉사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자원봉사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들에



김씨가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재능기부’ 문화가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전주박물관 과동서
- ◆광주경찰청
◇전보 ▲청문감사담당관 우형호 ▲경무과장 하대욱 ▲정보통신담당관 안병갑 ▲경비교과장 김학남 ▲보안과장 양승규 ▲경무 송두현 ▲경무(교육) 이상훈 ▲남부서장 김진희 ▲북부서장 김재석
- ◇경정 승진 ▲정보과 이상재 ▲청문감사담당관실 박경철 ▲남부서 형사과 이재현 ◇경감 승진 ▲광산서 우영기 ▲동부서 김성식 ▲남부서 심정환 ▲경비교과장 김준호 ▲경무과 정균수 ▲서부서 천국배 ▲북부서 이흥우 ▲광산서 박명규 ▲수사과 이재현 ▲보안과 엄완호 ▲북부서 김준균 ▲청문감사담당관실 전기철 ▲경무과 양동호 ◇경위 승진 ▲생활안전과 이선오 ▲보안과 최광학
- ◆전남경찰청
◇전보 ▲홍보담당관 안병호 ▲경무과장 김명호 ▲경비교과장 안동준 ▲보안과장 김경만 ▲경무 김영창 ▲경무(교육) 오윤수 ▲목포서장 김원국 ▲나주시장 박병동 ▲광양서장 박봉기 ▲고흥서장 박석일 ▲화순서장 한재숙 ▲장성서장 이윤 ▲무안서장 송승욱 ▲진도서장 박삼복
- ◇경정 승진 ▲청문감사담당관실 정현 ▲보안과 서상준 ▲나주시 정보보안과 문병조 ▲광양서 수사과 김영우 ◇경감 승진 ▲영광서 경무과 정태일 ▲경무과 송재일 ▲목포서 경무과 김웅 ▲고흥서 정보보안과 송영준 ▲순천서 경무과 권희안 ▲무안서 정보보안과 박현수 ▲해남서 청문감사실 김강하 ▲진도서 생활안전교과장 고명선 ▲여수서 보안과 이윤규 ▲홍보담당관실 정영민 ▲국성서 경무과 이명관 ▲화순서 읍내파출소 조계정 ▲경비교과장 김연하 ▲영암서 정보보안과 조재현 ▲장성서 화진파출소 송인규 ▲수사과 정남희 ▲수사과 최경배 ▲담양서 생활안전교과장 김현희 ◇경위 승진 ▲경비교과장 황용규 ▲경무과 양진기 ▲청문감사담당관실 권수태

세방전지, 저소득 100가구에 생필품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순재재단이사장 이의순)이 지난 연말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방이(순재재단) 광주공장 임직원들이 광산구 남남동 거주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전국 저소득층 100가구에 사랑의 온기를 배달했다.

호남예술제 출신 초등생 작가 됐다

광주남초 박한얼양 소설집 ‘바이탈린’ 펴내

“호남예술제 등 문예 공모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작가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글을 쓰고 싶어요.”
호남예술제 산문·운문 부문에서 수차례 입상한 박한얼(12·광주남초 6)양이 최근 소설집 ‘바이탈린’(황금무늬 펴냄)을 냈다.
표제작 ‘바이탈린’은 바이올린과 주인공의 이름인 ‘달이’의 합성어며,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는 성장기 소설이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하나뿐인 오빠마저 사고로 떠나보낸 주인공 달이가 바이올린으로 외로움을 치유하다가 어머니처럼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일상을 탈출한 소녀의 모습이 아기를 담은 ‘나의 작은 통굴에서’, 명랑한 초등학생들의 우정을 다룬 ‘화분’ 등 3편의 소설을 180쪽 분량의 책에 담았다.
박양은 어린 시절부터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여가 너머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논술대회에 참가해 알게 된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고정욱작가에게 자신의 소설을 읽어달라며 이메일을 보냈

고, 소설을 알아본 고 작가는 출판사에 박양을 소개했다.
고 작가는 추천사에서 “이 책에 실린 세 작품은 아마 초등학교생이 쓴 국내 최초의 본격 소설이 아닐까 싶다”며 “어린이의 글이 빠지기 쉬운 황당한 괴담이나 판타지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 더 가슴아하다. 그 가능성 또한 무한한 큰 기대를 하게 한다”고 평했다.
박양은 글쓰기는 물론 운반, 노래 등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피아노 연주와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 성적도 최상위권인 박양은 지난해 1학기 전국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양은 “마르코 키가 작아서 별명이 ‘이쑤시개’, ‘웃다리’이지만 몸만큼은 2m가 넘는, 키 큰 아이”라며 “앞으로 내가 직접 쓰고 그린 글·그림을 담은 책은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재모, 6세 연하 신부와 결혼

탤런트 안재모(32)가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마벨러스 컨벤션에서 6살 연하의 뷰티 사업가 이다연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탤런트 이종수의 사회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결혼식의 주례는 ‘아인시대’, ‘용의 눈물’의 이환정 작가가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김조한과 이기찬이 불렀다.
안재모는 신부를 위해 유리상자의 ‘신부에게’를 직접 불렀다.
두 사람은 야구 선수 조용준의 소개로 만나 2년 간 교제해왔다. 안재모는 결혼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부가 현재 임신 2개월”이라고 밝혔다.

박종 조선대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박종 조선대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가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헌신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교수는 또 2010년 대한민국통합의학회회를 통해 전남 도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공헌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도 함께 받았다.
/채희중기자 chae@



전남대 총동창회 신년하례회



전남대총동창회(회장 최상준)는 최근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남대 김윤수 총장, 송기근 광주 행정부시장, 장휘국 광주 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 총동창회 제공>

광주여대-광주교대 교육협력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정원)와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근기)는 최근 광주여대에서 교원양성 교육과 학술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여대 제공>

하트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희망나눔 콘서트’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희망나눔 콘서트’ 일환으로 공연에 나선 이들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씨와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등을 연주했다.
지난 2007년 시각장애인 12명과 객원연주자 8명으로 구성된 하트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는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페스티벌, 한·일 친선 콘서트 등에 참여해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사회, 이웃돕기 2400만원

이정남 광주시의사회장은 최근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열린 광주시의사회 신년인사회 및 70년사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1882만원과 인제야생장학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에 각각 전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환측**
▲김연호(하남철강(주) 대표)·민순자씨 장남 나민군 정전철(담양군의회 의장)·박봉순씨 장녀 청아양 =15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 종친회**
▲문화회plex 하정공과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모임 =13일(목)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652-5294.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가정 “사법적인 총장로 상인회” 창립총회 개최 =18일(화) 오후 3시

- 파레스 관광호텔 7층 대인회장.
▲중고컴퓨터 기증할 분 =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 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010-4666-2226
- 모집**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원 선발 =발로 볼을 차 흠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진원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 교육생 =국비지원혜택·고용보완가 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불소이 무용학원 =발레·재즈·방송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무산 태권무예술원 =영어·태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라, 미용, 양생, 호신, 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청소녀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대교류센터(062-226-2734)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풀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 =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건강수치침 회원 =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원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

- 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 =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할,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p>▲유애금씨 별세 정거행(전 전남 대표)씨 모친상 =발인 11일(화) 무여고 교사)·기수·기흥(CNC라이트 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p>	<p>▲김동현 님(남/77세) 子/녀: 김원태 / 오혜정 · 현성 / 서순순 귀성 / 최영애 女/婿: 김태수 / 최영애 ·호실301호 · 발인:1월 10일 · 장지:나주분향소</p>	<p>▲나갈례 님(여/89세) 子: 정찬용, 기복 女/婿: 정찬순 / 이장재, 천금 / 박오근 삼례, 오배 ·호실402호 · 발인:1월11일 · 장지:화순이양</p>
---	---	--

☎ (062) 227-4000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 250-4455